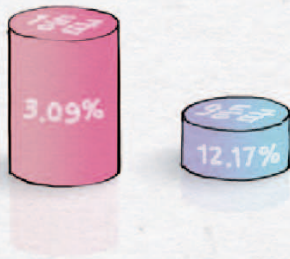


뚝프의 생생정보

나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나쁜습관 7가지



☑️ 소액 연체는 신경 쓰지 않는다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일 이상 연체하면 등급 하락의 요인이 됩니다.



나의 신용등급은 어떻게 될까?

신용등급은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종합적 판단인데요. 나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나쁜 습관들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결혼, 내 집 마련, 창업 등 누구나 금융 대출이 필요한 시기는 있기 마련인데요. 1억원을 빌린다고 하면 1등급은 최저 3.09%, 9등급은 최고 12.17%로 최대 4배 차이 이자로 내는 돈은 1등급은 309만원, 9등급은 1,217만원 (자료-전국은행연합회)

☑️ 공과금, 통신비 납부기한을 자주 넘긴다

매달 주기적으로 납부하는 대금들의 연체는 신용등급을 떨어뜨립니다.



☑️ 주거 은행이 없다

거래은행을 자주 바꾸는 것보다는 주거 은행을 1~2곳 정해서 꾸준히 오래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체가 여러 건이다

100만원 연체 1건보다 10만원 연체 서너건이 더 좋지 않습니다.



☑ 연체 기간이 길다

연체가 길어질수록 등급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고 오래된 연체부터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카드 한도를 채운다

상환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은 연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 의리 빼면 시체다

보증을 서면 신용조회기관에 내용이 기록되고 채무자의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인의 신용이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등급은 올리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내려가는 것은
미끄럼틀 타듯 쉽고 빠르다고 합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신용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